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2020. 7

강성호·정인영

■ 목차

요약 / 1

I. 서론 / 2

1. 연구배경 / 2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 4

II.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현황과 특성 / 8

1.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현황 / 8

2. 보험산업 인력 구성과 특성 / 11

3. 소결 / 20

III.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22

1. 산업유형별 일자리 창출 효과 / 22

2.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25

IV. 결론 / 34

| 참고문헌 | / 36

| 부록 | / 38

■ 표 차례

- 〈표 II-1〉 금융권역별 취업자 수 추이 / 9
- 〈표 II-2〉 산업유형별 부가가치율 / 10
- 〈표 II-3〉 산업별 임금 격차 비교 / 11
- 〈표 II-4〉 금융업권별 연령대 비중 / 14
- 〈표 II-5〉 금융업권별 학력 분포 / 15
- 〈표 II-6〉 생명보험 전속보험설계사의 성별 추이 / 16
- 〈표 II-7〉 전속보험설계사 학력별 분포(생명보험, 2010년 기준) / 17
- 〈표 II-8〉 설계사의 소득 분포(2017년 기준) / 17
- 〈표 II-9〉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유형별 취업자 수 변화 / 19
- 〈표 II-10〉 코로나19 전후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 변화 / 19
- 〈표 II-11〉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유형별 채용자 수 변화(2020년 3월 기준) / 20
- 〈표 II-12〉 보험산업 환경 변화/일자리 특성과 일자리 수의 관계(예시) / 21
- 〈표 III-1〉 주요 산업의 고용유발계수 비교 / 25
- 〈표 III-2〉 산업유형별 취업자 현황(2017년) / 27
- 〈표 III-3〉 산업별 취업계수/고용계수 / 28
- 〈표 III-4〉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행렬: $(I-AD)^{-1}$ / 29
- 〈표 III-5〉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 29
- 〈표 III-6〉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 30
- 〈표 III-7〉 산업별 간접고용유발계수 행렬 / 31
- 〈표 III-8〉 보험산업 매출액 발생을 위한 비금융서비스 구매비용 / 32

■ 그림 차례

- 〈그림 II-1〉 보험산업 인력 현황 추이 / 12
- 〈그림 II-2〉 보험산업 설계사 인력 추이 / 12
- 〈그림 II-3〉 보험산업의 정규직/여성 비중 / 13
- 〈그림 II-4〉 금융업권별 영업마케팅 비중 / 14
- 〈그림 II-5〉 금융업권별 연 5천만 원 이상 급여자 비중 / 15
- 〈그림 II-6〉 생명보험 인력 현황 추이 / 16
- 〈그림 II-7〉 보험산업 비대면 채널의 규모 및 비중 추이 / 18
- 〈그림 III-1〉 주요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 24
- 〈그림 III-2〉 주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 24

요약

뉴노멀 현상과 코로나19라는 환경 변화로 일자리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의 뉴노멀 환경에서 기술진보는 노동을 지속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충격은 이러한 노동대체성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그동안 고용정책은 공공근로, 임시·일용직 등의 확대와 같은 단기적 정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될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과거의 고용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뉴노멀 현상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 고용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산업 간 연관성이 높아 타 산업의 일자리도 유발시키는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보험산업의 일자리 특징을 보면, 임직원과 설계사로 구분되는 보험산업의 일자리는 매우 이질적이고 향후 대면서비스의 감소로 설계사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의료/건강, ICT산업 등 다른 산업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보험산업의 특성상, 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본고를 통해 살펴본 결과, 보험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IT 활용 등으로 산업의 체질을 꾸준히 개선해 왔고, 이러한 결과로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하여, 보험산업의 취업/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 일반금융(비보험) 등 주요 산업에 비해 크고, 특히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보험산업이 IT/교통/통신, 의료/보건 등과 같은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고용정책 추진 시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산업 간 연계성이 강한 보험산업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인슈어테크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등 보험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I. 서론

1. 연구배경

- 최근 노동환경 변화는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의 ‘뉴노멀 현상’과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충격’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과정에서 AI로 대표되는 기술진보는 일자리 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됨(오은주 2018)
 -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우리나라 고용률¹⁾은 2009년 63.0%에서 2019년 66.8%로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나,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전업 근로자로 환산한 전업환산 기준²⁾에 의한 일자리 수는 감소하여 왔음
 - 전업환산 기준 일자리 수는 통계청의 공식 일자리 수보다 약 8.9%³⁾ 적어 근로시간을 표준화하여 산출한 실질 고용률은 낮아지게 됨

1) 고용률이란 ‘15~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정부 일자리상황판/일자리상세지표)

2) 전업환산기준(Full-time Equivalent)이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업 근로자의 근로시간(예: 1일 8시간)으로 환산하여 취업자(자영자 포함, 이하 동일) 수 및 피용자 수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한국은행(2014), p. 42)

3) 2017년 기준으로 전업환산 취업자 수는 2,435만 명(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2017년 부속표(취업자 수 및 피용자 수) 참조)이며,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는 2,673만 명(KOSIS/산업별 취업자)으로 전업환산 기준에 의하면 취업자 수가 8.9% 적음

- (체감실업률 증가) 2009~2019년 공식 실업률은 3~4%로 낮은 수준이나,⁴⁾ 체감 실업률⁵⁾이 2015년 11.2%에서 2019년 12.4%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일자리 수는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남⁶⁾

■ 한편, ‘뉴노멀 현상’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추가적 일자리 감소 등 노동시장 급변이 예고되고 있음

- (취약계층 고용 충격)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감소 충격은 취약노동 계층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크게 나타나고⁷⁾ 고용률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⁸⁾
 - 상용직은 0.1% 감소함에 반해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은 각각 7.0%, 7.9% 감소함(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취업자는 1.6% 감소)
 - 2019년 4월 대비하여 취업자 수는 47.6만 명 감소하고, 고용률은 1.4%p 하락함(글로벌 금융위기인 '09. 4월에 63.1%를 기록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체감실업률 증가) 이로 인해 체감실업률은 2020년 4월 기준 14.9%로 전년 동월 대비 2.5%p 상승하였고,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26.6%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함⁹⁾

■ 그러나 그동안의 고용정책은 공공근로, 임시일용직 등의 확대와 같이 고용의 질¹⁰⁾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단기적 경기부양에 머무름

- (기존 고용정책 한계) 이러한 고용정책은 산업구조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왜곡

4) e-나라지표/일반고용동향

5)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이란 실망실업자 등 비경활인구를 포함한 실업률임

6) 고용노동부(2020. 5. 13), “'20. 4월 고용동향”

7) '2020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2020년 2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1,827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 5,000명 감소로 동 조사 고용부문 조사 시작(2009년 6월) 이래 첫 감소임(<https://mywelfare.or.kr/2158>)

8) 고용노동부(2020. 5. 13), “'20. 4월 고용동향”

9) 고용노동부(2020. 5. 13), “'20. 4월 고용동향”

10) 일자리의 임금수준, 부가가치 창출 정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뉴노멀 현상’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고는 장기적이고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산업별 일자리 유발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¹¹⁾
 - (연구 목적) 특히,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¹²⁾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 중 부가가치¹³⁾가 높은 금융/보험서비스, 특히 보험산업의 일자리 효과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함
 - (연구 이유) 보험산업에 초점을 둔 이유는 보험산업의 특성상 산업 간 연관효과가 커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되기 때문임¹⁴⁾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금융인력 수요 전망,¹⁵⁾ 일자리 기여도 분석 등 매우 다양하나,¹⁶⁾ 여기서는 산업별 일자리 유발 효과¹⁷⁾를 추정하는 산업연관분

11) 산업연관분석 관련한 전문용어는 〈부록 1〉 용어정리를 참조 바람

12)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19. 2. 28), “한경연, 서비스산업 혁신 과제 제안”

13) 부가가치는 기업 활동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의 총 판매액에서 생산을 위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원자재 등 중간 생산물의 투입액을 공제한 순생산액을 의미함

14) 이와 관련하여서는 ‘Ⅲ.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의 간접고용유발 효과를 참고하기 바람. 또한 실물과 금융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연관비율은 1995년 4.7%에서 2005년 6.5%로 지속적으로 증가(동 기간 보험업 0.21%→0.40%)한 것으로 나타남(신현열·김보성 2007)

15) 박재하·장민(2020)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 1,514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향후 1년 이내(2019년 9월 기준) 추가채용 예상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16) 한국고용정보원(2019)은 2017~2027년 동안 금융/보험산업의 인력은 연평균 0.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17)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에 의해 추정하는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

석을 중심으로 살펴봄

- (금융산업의 산업연관)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업종별로 다양하나,¹⁸⁾ 여기서는 금융산업의 취업(고용)유발계수¹⁹⁾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함
 - 취업(고용)유발계수는 해당 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10억 원) 증가할 경우 해당 부문과 여타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취업자(피용자) 수를 의미함

■ 신현열·김보성(2007)²⁰⁾은 금융산업(금융/보험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21.0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연간 1.14명 감소하였지만,

- (외환위기 영향) 금융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급감한 이유로,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과 인터넷뱅킹의 확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음
- (방카슈랑스 영향) 보험업은 보험중개의 비중이 커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으나 방카슈랑스 도입(2003. 8) 이후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분석결과에 의하면 보험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3년 기준 19.6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윤윤규 외(2008)에 의하면,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었으며, 금융/보험업은 전체 산업의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 분석됨²¹⁾

(고용)유발효과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취업(고용)유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봄

- 18) 김정옥 외(2015)는 공간정보산업을, 이승창 외(2010)는 유통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산업 간 연쇄효과를 파악함. 김봉철(2002)은 광고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함
- 19)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취업유발계수는 10.5명, 고용유발계수는 7.6명이며, 고용유발계수를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가 9.8명으로 가장 높고, 광산품 7.9명, 건설 7.8명 순임.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 9. 25), “2016-2017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
- 20) 신현열·김보성(2007)은 IO표 분류에 따라 금융산업을 은행, 비은행, 기타 금융중개기관, 생보, 손보,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진전된 2003년 IO표를 1995년 IO표와 비교하여 분석함
- 21) 윤윤규 외(2008)에서는 취업유발효과를 고용유발효과로, 고용유발효과를 피용자유발효과로 표현하고 있음. 한편, 농림수산업은 취업유발효과가 높지만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므로 취

- (취업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 시 산업전체는 18.3명, 서비스업은 19.8명(사회 및 기타서비스는 29.9명), 금융/보험업은 11.9명으로 추정됨
 - 김종국·송덕진(2008)²²⁾에 의하면 금융/보험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03년 10.7로 추정되어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 시 10.7명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다른 산업(농림어업 7.1, 제조업 8.6)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았음
 - (산업별 효과) 한편, 정기호(2013)²³⁾는 보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생명보험은 후방생산유발효과가, 손해보험은 전방생산유발효과²⁴⁾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금융/보험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외환위기 전후의 특정 시점에서 달라진 것으로 분석됨
 -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연구(신현열·김보성 2007; 윤윤규 외 2008)에서는 금융/보험산업의 취업유발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영향을 벗어난 시점의 연구(김종국·송덕진 2008)에서는 금융/보험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됨
-
- 업유발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주장함
- 22) 김종국·송덕진(2008)에 의하면,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455, 영향력계수(후방연쇄효과) 0.879, 감응도계수(전방연쇄효과)는 0.608로 추정되고, 타 산업에 비해 계수 값들이 낮으나 은행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됨
- 23) 정기호(2013)는 생산유발효과에 초점을 두었으며,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는 분석하지 않음. 또한 동 연구는 총연쇄효과와 순연쇄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고, 순연쇄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24) 정기호(2013)는 손해보험의 전방생산유발효과가 큰 것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은 생산과정에서 다른 산업과 연관성은 약하지만 판매과정에서 산업연관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석함

나. 차별성 및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들은 보험산업의 고용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음
 - (고용효과분석 미흡) 보험산업 관련 선행연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효과가 아닌 생산유발효과에 초점을 두었거나(정기호 2013 등), 외환위기 이전의 상황이거나 생명보험에 국한한 부분적 연구임(김종국·송덕진 2008)
 - (코로나 영향 미반영) 또한 코로나19 전후 상황을 고려한 보험산업의 일자리 논의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수행된 연구가 없음
- 전체 산업별 일자리 현황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살펴보고,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일자리 현황과 특성: 제2장) 통계청 등 공신력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별 일자리 현황, 특징 등을 정리함
 - 3차 서비스 산업이 중추산업이고,²⁵⁾ 이 중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수, 임금수준 등과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한 변화 가능성을 검토함
 - (일자리 창출 효과: 제3장) 한국은행 2017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함
 - 금융/보험산업을 일반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은행, 금융투자 등), 보험산업, 금융보조²⁶⁾로 구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함

25) 1차 산업을 농림수산업(농업, 축산업 등), 2차 산업을 제조업 등(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등)으로, 3차 산업을 서비스업(금융/보험업, 유통업, 도매업, 소매업 등)으로 구분할 경우 2019년 기준 3차 산업 비중이 62.1%임(산업연구원/산업통계분석시스템(instans)/주제별통계/산업구조/1차, 2차, 3차 기준)

26) 금융보조는 '금융/보험보조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설계사 등이 포함됨

II.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현황과 특성

1.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현황

- 2019년 기준 전산업 취업자(자영자 포함) 수는 2,712만 명으로 이 중 금융/보험업 종사자는 3%(80만 명)로 나타남(e-나라지표/산업별 취업자)
 - (피용자) 이를 피용자 기준으로 보면 전산업의 피용자 수는 1,838만 명이며, 이 중 금융/보험업 종사자는 4.1%(75만 명)로 조사됨²⁷⁾
 - (산업분류 기준) 이하에서는 전체산업과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인 제조/건설업, 3차 산업의 서비스업으로 구분하되, 서비스업은 비교를 위해 금융/보험업과 공공부문²⁸⁾으로 구분함
- 전체 산업의 취업자 기준으로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보험산업 인력²⁹⁾(임직원과 모집인)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83만 명 수준임³⁰⁾
 - (임직원 vs. 모집인) 금융회사 임직원과 모집인(설계사, 카드/대출모집인) 수는 각각 38.4만 명, 44.7만 명으로 전체 금융산업 인력의 53.8%가 모집인임
 - (업권별 임직원 수) 금융업권별 임직원 수는 전체(83만 명) 대비 은행 14.9%, 상

2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1. 31), “2019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8) 공공부문은 해당 통계생산 기관의 분류체계를 따랐으며, 출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세부내용은 제시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29)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가 금융회사로부터 분기 또는 월별로 취합한 통계로, 조사방식, 금융업 범위 차이 등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취업자 수와 차이를 보임. 이하에서 사용하는 인력 수는 일자리 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30) 동 규모 수준은 ‘투입산출표의 생산자가격 기본부문’ 기준으로 총 381개 업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작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호금융 14.4%, 보험 7.2%, 금융투자 5.8% 순임

- 금융회사 임직원은 은행업을 중심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은 증가 추세, 보험산업은 감소 또는 정체 추세임

○ (업권별 모집인 수) 모집인(44.7만 명) 중 대다수가 보험설계사(94.6%)이며, 카드모집인과 대출모집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임

〈표 II-1〉 금융권역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임 직 원	은행	13.8	13.5	13.3	12.4
	보험	6.1	6.0	5.9	6.0
	금융투자	4.4	4.5	4.7	4.8
	상호금융	12.1	12.3	12.4	12.0
	기타	3.5	3.4	3.3	3.2
	소계 (A)	40.0	39.7	39.6	38.4
모 집 인	보험설계사	43.8	42.8	42.8	42.3
	전속	20.3	19.7	18.9	17.9
	GA 소속	23.5	23.1	23.9	24.4
	카드모집인	2.2	2.4	1.8	1.3
	대출모집인	1.2	1.2	1.2	1.1
	소계(B)	47.2	46.4	45.8	44.7
전체(A+B)		87.2	86.1	85.4	83.1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11. 18),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향”

■ 금융/보험산업의 부가가치, 임금수준 등을 살펴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부가가치율) 일자리 질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편임

- 농림수산업(1차 산업), 제조업(2차 산업)은 2017년 기준 각각 55.3%, 30.0%였으나, 서비스업은 56.4%였으며 이 중 금융/보험업은 58.9%, 공공행정은 75.4%로 나타남³¹⁾

31)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등은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부문(행

〈표 II-2〉 산업유형별 부가가치율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2016	2017
전산업	44.7	41.2	36.4	34.7	35.0	37.0	43.8	43.5
농림수산업	65.6	58.0	53.3	55.4	54.4	55.3	53.7	55.3
제조업	31.0	25.4	21.8	20.4	20.6	22.2	29.7	30.0
건설업	41.3	45.3	32.2	31.9	32.9	34.5	42.6	42.7
서비스업	60.8	57.1	55.4	54.8	54.4	55.2	56.9	56.4
금융/보험	71.1	62.7	54.9	54.9	52.8	53.2	58.4	58.9
공공행정	60.0	68.9	76.1	75.7	76.2	73.9	75.9	75.4

주: 1) 한국은행 통계 개편으로 2010년 이전과 이후 통계의 일관성이 없을 수 있음

2)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생산) × 100

자료: '산업연구원/산업별통계/주제별통계/생산부문/부가가치/부가가치율'의 총 7개 산업군에서 추출하였으며, 이 중 서비스업은 1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금융/보험, 공공행정만 추출함

○ (산업별 임금) 금융/보험업의 임금수준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금융/보험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³²⁾

-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전체 산업의 월임금총액을 1로 두고 산업별 임금을 비교한 결과, 농림수산업, 건설업은 각각 0.94배, 0.88배로 낮고, 금융/보험업은 1.79배로 가장 높은 산업군에 속함³³⁾
- 정규직을 대상으로 보면 금융/보험업이 전체 평균의 1.64배이고, 비정규직도 2.11배로 나타났으며, 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자를 포함할 경우에도 전체 산업의 평균에 비해 1.8배 수준으로 조사됨
- 이를 통해 볼 때 금융/보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정규직, 설계사 등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이 취약한 직군에서 그나마 양호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분석됨

정조직의 일부)으로 시장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2) 이상원(2019)도 금융/보험산업은 양질의 일자리임을 언급함

33) 다만, 〈표 II-3〉에서 제시된 총 5개 산업군 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1.82배 (전체 근로자 기준)로 금융/보험업보다 다소 높았지만, 본고는 2차 산업을 제조/건설업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KOSIS/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표 II-3〉 산업별 임금 격차 비교

(단위: 배)

산업유형	전체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포함)
전체	1.00(3,138)	1.00(3,612)	1.00(1,643)	1.00(1,811)
농림수산업	0.94	0.99	1.09	0.99
제조업	1.18	1.08	1.23	1.15
건설업	0.88	0.93	1.28	1.17
금융/보험업	1.79	1.64	2.11	1.8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83	0.82	0.92	0.83

주: 1) 월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전년도연간특별급여 / 12개월

2) () 안은 월임금총액(천 원)임

자료: KOSIS/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원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총 18개 산업군에서
〈표 II-2〉와 효과적 비교를 위해 5개 산업군을 추출함

■ 부가가치율, 임금 수준 등 일자리 질을 고려할 때 금융/보험산업은 해당산업 및 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연관분석 의의)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보험산업의 취업(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는 점은 금융/보험산업과 타 산업 간 연관이 크다는 특징과 관련되므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이에 본고는 보험산업의 인력 구성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2. 보험산업 인력 구성과 특성

가. 보험산업의 인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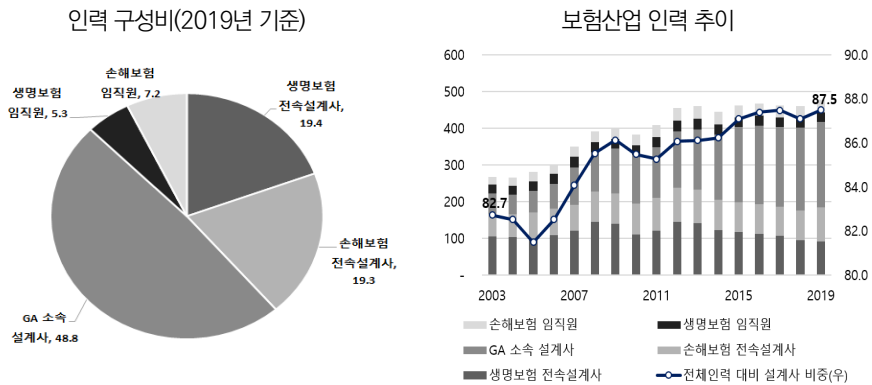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보험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과 설계사 구성비는 “12.5 : 87.5”로 전체 인력 중 설계사가 대부분을 차지함(〈그림 II-1〉 참조)

○ (직무별 비중) GA 소속 설계사(48.8%), 생명보험 전속설계사(19.4%), 손해보험 전속설계사(19.3%), 손해보험 임직원(7.2%), 생명보험 임직원(5.3%) 순임

- (설계사 인력) 2019년 기준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손해보험 전속설계사, GA 소속 설계사는 각각 92,312명, 92,193명, 232,770명임
- 보험산업 전체 인력 대비 설계사 인력 비중은 2003년 82.7%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19년 기준 87.5%에 달함

〈그림 II-1〉 보험산업 인력 현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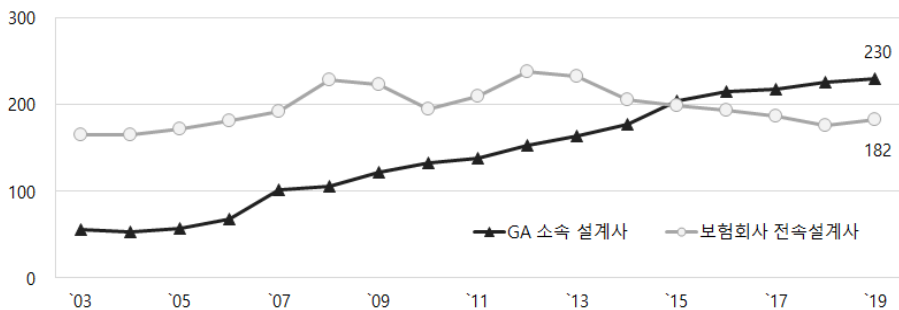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GA 설계사 비중 증가) 전속설계사는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이동 등으로 종사자 수가 감소 추세인 반면, GA 소속 설계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II-2〉 보험산업 설계사 인력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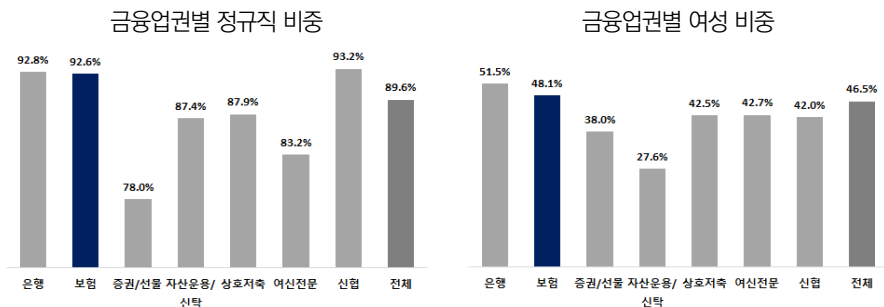
나. 보험산업 인력의 특징

- 특히, 보험회사 임직원과 설계사 인력은 각기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일괄적 비교에 무리가 있으므로 임직원과 설계사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활용 자료) 보험회사 임직원 특성에 관한 세부 특성은 매년 금융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³⁴⁾ 및 수급전망 자료를 활용하며, (전속)설계사 인력의 특성에 관한 자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료를 활용함
 - (전속설계사에 초점) 현재 보험산업에 종사하는 설계사 인력의 절반 이상은 법인보험대리점(GA)에 속하고 있으나 이들의 인적 특성에 대한 별도의 정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전속 설계사로 특징을 살펴봄

1) 보험회사 종사자³⁵⁾: 임직원

- 보험회사 정규직 비중이 92.6%(전체 산업 63.6%, 금융 89.6%, 광·제조업 83.1%)인 점에서 금융산업의 고용은 상당히 안정적인
 - (성별 비중) 보험업의 여성 고용비율의 경우 48.1%로 은행(51.5%)에 이어 여성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임

〈그림 II-3〉 보험산업의 정규직/여성 비중



자료: 박재하·장민(2020)

34)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 조사에서는 보험설계사는 제외하고 있음

35) 박재하·장민(2020)

- 보험산업의 50대 이상 연령 비중은 13.1%로 금융업권 평균(15.3%)보다 다소 낮아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으로 구성됨

〈표 II-4〉 금융업권별 연령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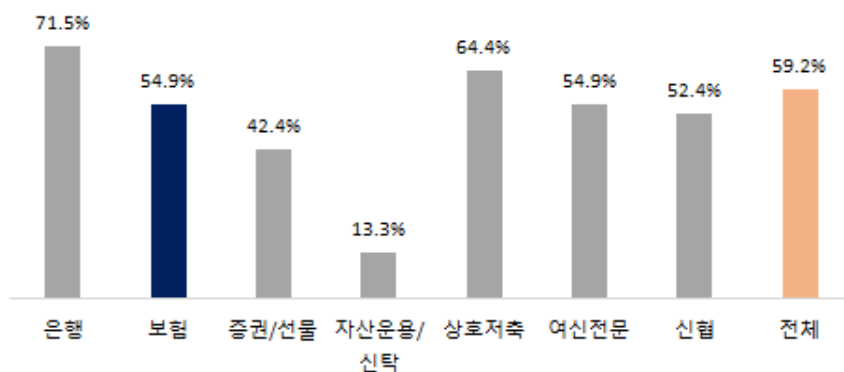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20대 미만	0.8	1.3	0.5	0.5	0.3	0.4	-	0.5
20대	14.1	13.3	13.1	11.1	17.6	20.8	15.2	23.4
30대	37.7	37.7	36.7	39.4	41.1	43.6	38.3	31.9
40대	32.1	30.7	36.7	33.9	28.0	24.2	36.1	23.2
50대 이상	15.3	17.0	13.1	15.2	13.0	10.9	10.3	2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박재하·장민(2020)

-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인력 비중을 차지한 직무는 영업·마케팅(59.2%)이며, 보험산업 또한 전체 직무 중 54.9%로 가장 높아 영업·마케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림 II-4〉 금융업권별 영업마케팅 비중



자료: 박재하·장민(2020)

- 보험업권은 대출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67.0%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고학력자가 많음

〈표 II-5〉 금융업권별 학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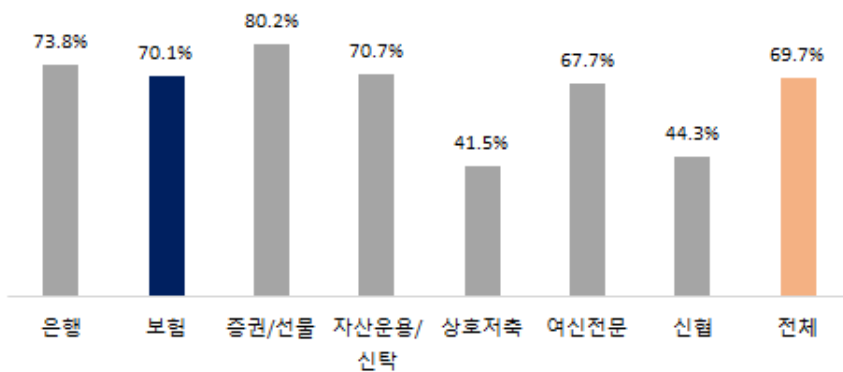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고졸	16.7	19.6	19.7	7.9	3.2	14.7	14.8	19.0
전문대졸	11.2	8.4	13.3	8.4	2.6	17.4	16.8	20.8
대출 이상	72.1	71.9	67.0	83.7	94.2	67.9	68.4	60.3
대출	64.0	65.5	60.2	70.0	70.5	64.0	60.1	56.7
대학원졸	8.1	6.4	6.8	13.7	23.7	3.9	8.3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박재하·장민(2020)

- 보험회사 직원의 70.1%가 연 5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 1억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비중은 17.6%로 상대적으로 고급여 산업으로 볼 수 있음

〈그림 II-5〉 금융업권별 연 5천만 원 이상 급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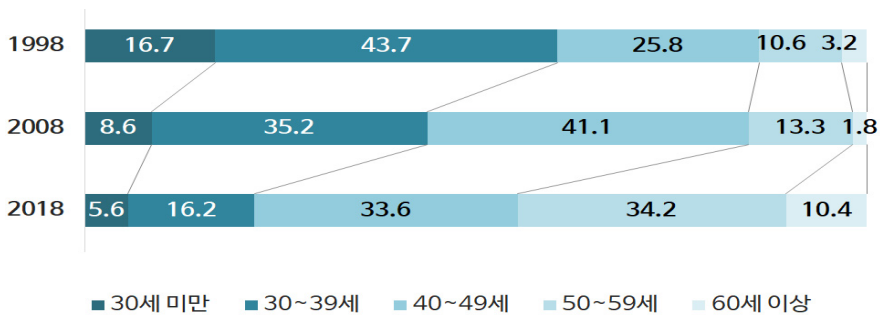
자료: 박재하·장민(2020)

2) 보험모집인: 전속설계사(생명보험)

-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중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44.6%로 설계사의 급속한 고연령화가 진행 중이며, 2018년 기준 여성 비중은 81.3%로 절대 다수임
- (고령화) 생명보험의 30세 미만 설계사 비중은 2018년 기준 5.6%로 1998년 대비 11.1% 감소하였으며, 50세 이상 설계사는 30.8%p 증가한 44.6%임

〈그림 II-6〉 생명보험 인력 현황 추이

(단위: %)



자료: 생명보험협회

- (여성 중심) 전속설계사의 남녀 비중은 2000년 1.8%, 98.2%에서 2018년 18.7%, 81.3%로 점차 남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비중이 높음

〈표 II-6〉 생명보험 전속보험설계사의 성별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남성	1.8	5.6	10.4	15.2	18.7
여성	98.2	94.4	89.6	84.8	81.3

자료: 생명보험협회

- 2010년 기준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가 전체의 46.4%를 차지하며, 임직원 중 고졸 이하 비중(19.7%)과는 큰 차이가 존재함

〈표 II-7〉 전속보험설계사 학력별 분포(생명보험, 2010년 기준)

(단위: %)

구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대졸 이상
비중	0.1	0.1	0.7	45.5	3.5	5.9	44.2

자료: 생명보험협회

- 10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가 상당수를 차지함
 - (업종별 급여 수준) 10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생명보험 27.4%, 손해 보험은 36.2%로 나타났으며, 500만 원 이상 임금 근로자 비중은 생명보험 17.2%, 손해보험 12.4%로 나타남

〈표 II-8〉 설계사의 소득 분포(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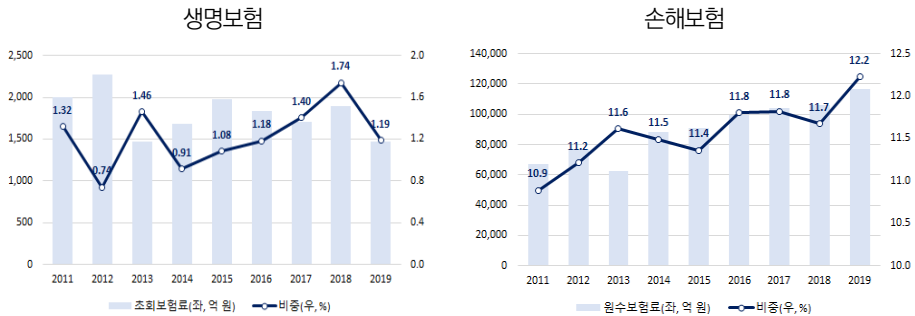
(단위: 명, %)

출처		50만 원 이하	50~100만 원	100만 원 이하	100~200만 원	200~500만 원	500만 원 초과	합계
생명 보험	인원	18,295	10,990	29,285	22,446	36,815	18,442	106,988
	비중	17.1	10.3	27.4	21.0	34.4	17.2	100.0
손해 보험	인원	20,240	9,419	29,659	17,532	24,654	10,124	81,969
	비중	24.7	11.5	36.2	21.4	30.1	12.4	100.0

자료: 정원석(2019. 6. 24)

- 보험산업의 비대면 채널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보험료가 대면채널에 의해 모집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비대면 중심) 코로나19 이후 환경 변화로 인해 비대면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보다 속도는 빠를 것이나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7〉 보험산업 비대면 채널의 규모 및 비중 추이



주: 1) 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초회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비대면은 TM(본사,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홈쇼핑)과 C/M(본사,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으로 구성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다. 코로나19와 보험산업 영향

■ 코로나19 영향은 산업별로 시차를 두고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³⁶⁾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전체 산업의 평균적 감소(-1.2%)에 비해 금융/보험산업(-0.9%)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표 II-9〉 참조)

○ (산업별 취업자 감소) 산업별 취업자 수(2020년 3월)는 전년 동월 대비하여 숙박/음식업이 12% 감소, 제조/건설은 0.3% 감소, 금융/보험은 0.9% 감소, 전체는 1.2% 감소함

- 한편, 동 기간 공공행정/보건업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성을 지닌 일자리로 코로나와 같은 사회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임
- 동 변화는 2019년 3월과 2020년 3월의 상황을 비교한 것이며, 코로나19의 영향은 지금보다 심화될 수 있음³⁷⁾

36)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유통업 등 내수·서비스업이 먼저 회복되고, 제조업과 항공업은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봄(하나금융연구소 2020)

37) 이에 반해, 한국은행(2020. 5. 27)에 의하면,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5월 경제심리지수(ESI)는 57.8로 전월에 비해 2.1p 상승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기대를 제시하기도 함: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 5. 27), “2020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표 II-9〉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유형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천 명, %)

산업유형	2019년 3월	2020년 3월	변화율
전체	18,503	18,278	(-1.2)
제조/건설	5,092	5,075	(-0.3)
숙박/음식업	1,272	1,119	(-12.0)
금융/보험	760	753	(-0.9)
공공행정/보건	2,502	2,627	(5.0)
기타	8,877	8,704	(-1.9)

주: 2019년 3월과 2020년 3월의 동기간을 비교함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4. 29), “2020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재정리함

■ 한편, 2020년 1분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하여 증가함(〈표 II-10〉 참조)

○ (수입보험료 증가) 2020년 1분기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생명보험 3.9%, 손해보험 9.1% 증가함

-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로는 경기침체로 해약·미납이 증가하였으나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신계약 실적이 호전되었기 때문임³⁸⁾

〈표 II-10〉 코로나19 전후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 변화

(단위: 억 원, %)

구분	'19년 1분기(A)	'20년 1분기(B)	증감(C=B-A)
생명보험	254,547	264,456	9,909 (3.9)
손해보험	219,218	239,262	20,044 (9.1)
전체	473,765	503,718	29,953 (6.3)

주: 1)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 안은 증감률(C/A)임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5. 27), “20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

○ (코로나 영향 제한적) 이를 고려할 때 금융/보험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현재까지 코로나19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이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는 크지 않았고(〈표 II-9〉 참조), 채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³⁹⁾

3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5. 27), “20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

39)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2020)에 의하면 2019

- 2020년 3월의 산업별 채용자⁴⁰⁾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숙박/음식업이 37.4% 감소, 제조/건설은 2.5% 감소한 데 반해, 금융/보험은 35.1% 증가함

〈표 II-11〉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유형별 채용자 수 변화(2020년 3월 기준)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산업유형	채용	상용	임시일용
전체	888 (-14.4)	440 (-2.9)	449 (-23.3)
제조/건설	345 (-2.5)	89 (-6.1)	255 (2.4)
숙박/음식업	72 (-37.4)	24 (-27.1)	48 (-41.5)
금융/보험	6 (35.1)	5 (32.4)	1 (49.1)
공공행정/보건	133 (1.4)	99 (15.1)	34 (-9.9)
기타	332	223	111

주: () 안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4. 29), “2020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재정리함

-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분기 상황만 볼 때 고용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나, 코로나19의 심화 정도에 따라 향후 고용 상태는 매우 가변적일 수 있음

3. 소결

- 금융/보험산업은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 간 연관성이 많아 해당산업 및 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보험산업의 중요성)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는 부가가치율, 임금 수준 등 일자리 질을 고려할 때 일자리 정책에 있어 중요한 산업으로 이해됨
 - (보험산업의 산업연관성) 특히 보험산업은 특성상 자동차/정비, 부동산/건설, 의료/건강, ICT산업 등 산업 간 연관성이 많다는 점에서 타 산업의 일자리 창출 과도 관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2020년 상반기의 전체 산업 일자리는 0.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데 반해 금융/보험 업종의 일자리는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40) 채용자는 당월 채용한 취업자 수이며, 채용뿐만 아니라 계속 근로, 퇴직/이직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취업자와 다른 개념임

■ 보험산업의 일자리 규모는 보험산업의 특징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수요 증가로 추가적 변화가 예상됨 (〈표 II-12〉 참조)

- (기존 환경 변화) 뉴노멀 환경에 자동화, 제도 변화 등은 전반적으로 보험산업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 (고령화) 자동화보다 고령화⁴¹⁾ 속도가 빠르면 대면서비스 수요는 증가하여 일자리 증가로 나타날 것임
 - (자동화 등) 인슈어테크 발전, 고용보험 도입은 설계사의 감소 등 관련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이 될 것임
-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는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의 환경 변화와 함께 관련 일자리 수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12〉 보험산업 환경 변화/일자리 특성과 일자리 수의 관계(예시)

환경 변화		서비스/제도 변화	취업자 수	
			임직원	설계사
기존의 환경 변화	고령화	대면서비스 수요 증가	△	양(+)
	자동화	인슈어테크 발전	음(-)	음(-)
	제도 변화	고용보험 도입	△	음(-)
코로나19		비대면서비스 수요 증가	음(-)	음(-)

주: △는 판단하기 어려움

41) 고령화율(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수)은 2020년 15.8%에서 2025년 20.2%, 2035년 29.0%, 2040년 32.9%(United Nations/Probabilistic Projections/Population by Age Groups - Both Sexes(강성호·김혜란 2019))

Ⅲ.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1. 산업유형별 일자리 창출 효과

가. 산업연관분석 개요 및 활용

- 산업들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 고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연관분석은 이런 산업간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함(한국은행(2014), p. 3)

- (산업연관분석 장점) 특히 최종수요를 통해 유발되는 생산, 고용, 소득 등에 대한 산업 간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상 장점이 있음(김경섭·정상범 2016)

- 본고는 산업연관표 중 고용표를 활용하여 산업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고용표의 특징과 한계는 다음과 같음

- (고용표의 특징) 산업연관분석상 취업자/피용자 수⁴²⁾는 전업환산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취업자/피용자와 다를 수 있음(한국은행(2014), p. 42)
 - 따라서, 산업 내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가 많을수록 환산된 취업자/피용자 수는 실제 수치보다 적음
- (고용표의 한계) 고용표의 특성상 세부 업종까지 구분해 내기 어렵고,⁴³⁾ 과거

42) 산업연관분석상 취업자/피용자 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별고용조사, 경제총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고용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함(한국은행(2019), p. 173)

43) '투입산출표의 생산자가격 기본부문'을 활용하여 381개 업종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보험산업의 경우 공제산업이 포함되나, 업종 세분화에 한계가 있음(부록 표 V-1) 참조)

통계에 의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에 의해 추정하는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취업, 고용유발효과)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노동유발효과인 취업(고용)유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봄

나. 산업유형별 고용/취업유발계수⁴⁴⁾ 변화 추이

- 1995~2017년 동안 우리나라 전산업의 고용(취업)유발 효과⁴⁵⁾는 산업 전반에 걸친 자동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정의) 고용(취업)유발효과는 생산액(판매액) 10억 원을 생산할 경우 유발되는 노동력(피용자 혹은 취업자 수)임
 - 이때 유발되는 노동력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유관 산업의 노동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각 직접유발효과, 간접유발효과라고 함
 - (효과) 1995~2017년 동안 산업별 고용(취업)유발계수는 24.24명(36.8명)에서 2017년 7.59명(11.04명)으로, 22년 동안 16.65명(25.76명) 감소함(〈그림 III-1〉, 〈그림 III-2〉 참조)⁴⁶⁾
 - IMF 외환위기 기간이 포함된 1995~2000년에 타 산업에 비해 금융/보험산업의 고용/취업유발계수는 급격히 감소한 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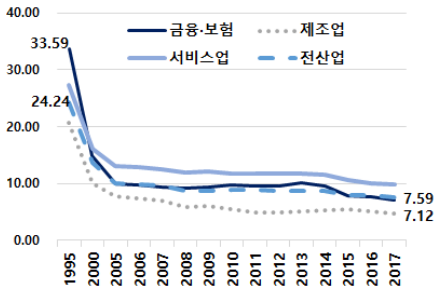
44) 노동유발계수는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된 전문용어는 〈부록 I〉 용어 정리를 참조 바람

45) 고용은 피용자를, 취업은 모든 경제활동자(근로자, 자영자 등)를 대상으로 함

46) 통계수치 등 세부사항은 〈부록 IV〉를 참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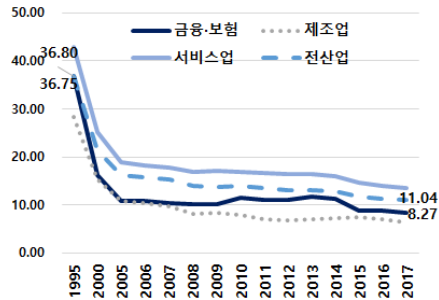
〈그림 III-1〉 주요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그림 III-2〉 주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주: 1) 고용(취업)유발계수 = 최종수요에 의한 고용(취업)유발 인원(명) / 국산품 최종수요액(10억 원)

2) 2015년 이후 산정방식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동일 연도일지라도 과거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3) 전산업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참조 바람

4) 세부 통계 수치는 <부록 IV> 참조 바람

자료: 산업연구원/산업별통계/주제별통계/산업연관관계/고용유발계수(산업별)

■ 금융/보험산업의 고용창출 수준은 다른 산업에 비해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높았으나, 이후 구조조정 및 IT 활용 등으로 급감함⁴⁷⁾⁴⁸⁾

- (글로벌 금융위기 제한적)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모든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감소시키는 경향은 있으나, IMF 외환위기 같은 경제적 충격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 (충격과 지속기간 구분) 이를 통해 볼 때 IMF 외환위기 전후의 급격한 일자리 수 감소는 '경제적 충격(Shock)'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일자리 수 감소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사회경제 환경에 따른 감소 현상으로 이해됨

47) <부록 IV>에서 1995~2000년 동안 전산업의 고용(취업)유발계수가 감소하였으며(고용유발계수: 24.24→13.64), 특히 금융/보험산업(고용유발계수: 33.59→14.81)이 급감함

48) 김중국·송덕진(2008)은 IMF 외환위기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금융산업은 구조조정, 업무 효율 향상 과정에서 고용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았음

〈표 Ⅲ-1〉 주요 산업의 고용유발계수 비교

(단위: 명/10억 원)

연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보험
1995년	14.72	20.77	27.25	33.59
2000년	8.33 (-43.4)	10.11 (-51.3)	16.11 (-40.9)	14.81 (-55.9)
2005년	7.54 (-9.5)	7.68 (-24.0)	13.14 (-18.4)	9.89 (-33.2)
2010년	5.12 (-32.1)	5.44 (-29.2)	11.73 (-10.7)	9.81 (-0.8)

주: 1) 고용유발계수 = 최종수요에 의한 고용유발 인원(명) / 국산품 최종수요액(10억 원)

2) 2015년 이후 산정방식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동일 연도일지라도 과거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3) 전산업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참조 바람

4) () 안은 5년 전에 비해 변화한 비율임. 2000년 () 값은 1995년에 비해 얼마나 변화한 것인지 보는 것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상황을, 2010년 값은 금융위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음

5) 세부 통계 수치는 〈부록 IV〉를 참조 바람

자료: 산업연구원/산업별통계/주제별통계/산업연관관계/고용유발계수(산업별)

2.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가.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산업연관표(2015년 실측표 기준 활용) 2017년 연장표/부속표/고용표(통합대/중/소분류)를 활용함⁴⁹⁾

○ (비교 산업군) 일반적으로 산업 간 비교 시 제조업을 비교대상 산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⁵⁰⁾ 제조업, 비금융산업, 금융/보험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금융/보험산업’은 산업연관표 부속표의 소분류에 의해 ‘일반금융’, ‘보험산업’, ‘기타금융서비스(금융보조)’로 분류되므로 이를 활용함(한국은행 2019)

○ (일반금융) 금융서비스 취업자(피용자) 수는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기타 금융중개기관’ 등의 합산 값으로 산출하였음

49) 표준산업분류는 금융/보험업 항목에 사회보장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업연관표상 금융/보험업에는 제외됨. 즉, 사회보장보험업, 공적연금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에 포함됨(한국은행(2019), p. 39). 산업연관표상 연금기금은 은행, 보험, 증권사가 관리하는 퇴직연금만 포함됨(한국은행(2019), p. 128)

50) <http://www.fsi.or.kr/01/03.asp> 등에서와 같이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의 비교를 제조업 및 전체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산업별로 비교함

- (보험산업) 보험서비스 취업자는 일반 생명보험,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우체국 보험, 각종 공제도 포함되어 있으나 보험모집인은 제외됨
 - 이로 인해 보험서비스 취업자를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은 산업연관분석체계상 불가능함
- (산업유형 재분류) 산업연관분석을 위해서는 보험산업 외 다른 산업도 존재해야 하므로 농림수산, 제조업, 비금융서비스,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의 6개 산업유형으로 재구분함(부록 표 V-1) 참조
 - 1, 2차 산업은 각각 하나의 산업유형으로 농림수산(1차 산업), 제조업(2차 산업)으로 하였으며, 서비스는 비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로 구분함
 - 금융서비스는 일반금융(은행, 금융투자)과 보험산업, 금융보조로 구분하였음⁵¹⁾

■ 생산유발계수 산출, 노동계수 산출, 노동유발효과 추정의 3단계로 보험산업의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10억 원)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을 의미함
 - (산식) 생산유발계수 $(I-A)^{-1}$ 는 '역행렬 계수'라고 불리며, 단위행렬인 'I'에서 투입계수행렬(A)을 뺀 행렬의 역행렬로 표현됨⁵²⁾
- (노동계수) 취업(고용)계수는 특정 산업부문 1단위(생산물 10억 원)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취업자(피용자) 수를 의미함
 - (산식) 취업계수는 '취업자 수(명 단위)'를 '산출액(10억 원 단위)'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고용계수는 피용자 수로 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⁵³⁾
- (노동유발효과) 고용(취업)유발효과는 생산액(판매액) 10억 원을 생산할 경우 유발되는 노동력(피용자 혹은 취업자 수)임

51) 주의할 점은 금융보조서비스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산업 체계로 포함할 수 있으나, 산업분류의 한계로 여기서는 별도의 산업군으로 구분됨

52)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은행(2014) 등을 참고하기 바람

53) 취업자 수는 피용자와 자영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취업계수가 고용계수보다 항상 많음

- (산식)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hat{l}_w(I-A)^{-1}$, $\hat{l}_e(I-A)^{-1}$ 로 산출됨
 * 단, $(I-A)^{-1}$: 생산유발계수, $\hat{l}_w \cdot \hat{l}_e$: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의 대각행렬
- 이때 유발되는 노동력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유관 산업의 노동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각 직접유발효과, 간접유발효과라고 함

나. 분석결과

1) 취업(고용)계수 산출

■ 취업(고용)계수 산출을 위해 취업자(고용자) 수와 투입비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 III-2>와 같음

- (취업/피용자 수) 취업자(피용자) 수를 보면 농림수산업 1,244천 명(96천 명), 제조업 3,945천 명(3,416천 명), 비금융 18,442천 명(13,413천 명), 일반금융 313천 명(306천 명), 보험산업 245천 명(232천 명), 금융보조 161천 명(142천 명)으로 나타남
- (투입계) 산업별 투입된 비용을 보면, 농림수산업 61조 원, 제조업 1,813조 원, 비금융 2,122조 원, 일반금융 94조 원, 보험산업 49조 원, 금융보조 29조 원으로 나타남

<표 III-2> 산업유형별 취업자 현황(2017년)

(단위: 천 명, %, 10억 원)

주요 산업유형		취업자 수		피용자 수		투입계
농림수산		1,244	(5.1)	96	(0.5)	61,468
제조업(광공산물 등)		3,945	(16.2)	3,416	(19.4)	1,813,050
비금융서비스		18,442	(75.7)	13,413	(76.2)	2,122,180
금융 서비스	일반금융(은행, 금융투자)	313	(1.3)	306	(1.7)	93,929
	보험서비스	245	(1.0)	232	(1.3)	48,966
	기타(금융보조)*	161	(0.7)	142	(0.8)	28,849
계		24,350	(100.0)	17,605	(100.0)	4,168,442

주: 1) 집계방식에 의해 한국은행 취업자 수와 통계청 등 전체 취업자 수 추계에 다소 차이가 있음

2) 위 취업자는 상품기준 분류체계를 따른 것임

3) *는 '금융/보험보조서비스'를 의미하며, 설계사, 방가 등 금융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됨(이하 동일)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부속표/고용표/통합소분류를 활용함

- 해당 산업별로 10억 원의 상품을 생산해 내는 데 필요한 취업자(피용자) 수는 보험 산업이 제조업이나 일반금융업(은행 등)에 비해 높음
- (취업계수) 10억 원을 산출하기 위해 제조업은 2.2명, 일반금융은 3.3명, 보험산업은 5.0명, 금융보조는 5.6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⁵⁴⁾
 - (고용계수) 10억 원을 산출하기 위해 제조업은 1.9명, 일반금융은 3.3명, 보험산업은 4.7명, 금융보조는 4.9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특징) 한편, 농림수산업은 사업의 특성상, 취업계수는 높고 고용계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즉, 고용계수가 낮으므로 임금근로자(피용자)의 필요성은 적은 데 반해 취업계수는 높으므로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⁵⁵⁾ 근로자가 많이 필요함을 보여줌

〈표 III-3〉 산업별 취업계수/고용계수

(단위: 명/10억 원)

구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			
			비금융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취업계수	20.2	2.2	8.7	3.3	5.0	5.6
고용계수	1.6	1.9	6.3	3.3	4.7	4.9

주: 세부자료 산출 방법 및 통계수치는 〈부록 V〉를 참조 바람

2) 취업(고용)유발계수 산출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산업 내 생산유발효과는 모두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타 산업에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취업(고용)유발계수는 산출된 생산유발계수의 행렬계산에 의해 산출됨

54) '산업유형별 취업자/피용자 수'에 '산업유형별 총투입계'를 곱하여 산출하며, 취업자/피용자 수와 총투입계의 세부통계는 각각 〈부록 II〉, 〈부록 III〉을 참조 바람

55) 한시제,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자, 가정 내 근로 등)으로 대부분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임

〈표 III-4〉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행렬: $(I-AD)^{-1}$

구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			
			비금융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농림수산	1.057	0.029	0.013	0.004	0.012	0.003
제조업(광공산품 등)	0.450	1.572	0.306	0.104	0.340	0.096
비금융서비스	0.220	0.282	1.365	0.283	0.926	0.266
금융서비스	일반금융	0.032	0.021	0.034	1.055	0.130
	보험서비스	-0.005	0.004	0.006	0.003	1.049
	기타(금융보조)*	-0.001	0.004	0.006	0.025	0.600

주: 1) (산업별) 취업(고용)계수 = 취업자 수(피용자 수) × 총투입계(10억 원)
 2) 총투입계 = 중간투입계 + 부가가치계(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 생산세)
 3) 세부자료 산출 방법 및 통계수치는 〈부록 V〉를 참조 바람

- 총 취업유발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6.6명, 일반금융은 6.4명, 보험산업은 18.1명, 금융보조는 8.7명으로 추정됨
- (직접효과) 동일 산업 내 취업유발효과인 직접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3.4명, 일반금융은 3.5명, 보험산업은 5.2명, 금융보조는 5.9명으로 추정됨
 - (간접효과) 타 산업에 미친 취업유발효과인 간접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3.1명, 일반금융은 2.9명, 보험산업은 12.8명, 금융보조는 2.8명으로 추정됨
 - (특징) 보험산업은 직접적 취업유발효과도 상당하나, 다른 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음

〈표 III-5〉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구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			
			비금융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직접효과 ¹⁾	21.4	3.4	11.9	3.5	5.2	5.9
간접효과 ²⁾	3.0	3.1	1.1	2.9	12.8	2.8
총효과	24.3	6.6	13.0	6.4	18.1	8.7

주: 1) 직접효과는 동일 산업 내 취업유발효과를 의미함
 2) 간접효과는 해당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산업 간 취업유발효과를 의미함
 3) 세부자료 산출 방법 및 통계수치는 〈부록 V〉를 참조 바람

- 총 고용유발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4.9명, 일반금융은 5.6명, 보험산업은 14.8명, 금융보조는 7.3명으로 추정됨
- (직접효과) 동일 산업 내 고용유발효과인 직접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3.0명, 일반금융은 3.4명, 보험산업은 5.0명, 금융보조는 5.2명으로 추정됨
 - (간접효과) 산업 간 고용유발효과인 간접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1.9명, 일반금융은 2.1명, 보험산업은 9.9명, 금융보조는 2.1명으로 추정됨
 - (특징) 보험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취업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간접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유관 산업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표 III-6〉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구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			
			비금융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직접효과 ¹⁾	1.6	3.0	8.6	3.4	5.0	5.2
간접효과 ²⁾	2.3	1.9	0.8	2.1	9.9	2.1
총효과	4.0	4.9	9.4	5.6	14.8	7.3

주: 1) 직접효과는 동일 산업 내 취업유발효과를 의미함

2) 간접효과는 해당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산업 간 취업유발효과를 의미함

3) 세부자료 산출 방법 및 통계수치는 〈부록 V〉를 참조 바람

3) 보험산업의 유관 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 보험산업의 간접적 고용유발효과(간접효과)는 9.9명으로 제조업, 비금융, 일반금융업에 비해 높으며, 이 중 비금융서비스에 5.85명, 금융보조서비스에 2.94명,⁵⁶⁾ 제조업에 0.64명의 고용을 창출시킴(〈표 III-7〉 참조)
- (보험산업의 강한 산업 연관) 보험산업의 판매(생산) 증가는 비금융서비스의 고용 증가 등 다른 산업의 고용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침
 - 이에 반해, 비금융서비스는 총고용 효과(9.4명) 중 대부분이 직접고용(8.6명)이라는 점에서 타 산업에 대한 고용파급효과는 미미함(〈표 III-6〉 참조)

56) 설계사로 구성된 금융보조서비스보다 비금융서비스에 대해 보험산업의 간접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이유는 두 산업의 규모의 차이에서 유추할 수 있음. 금융보조는 비보험서비스에 비해 총투입계 기준으로 1.4%에 불과하여 적은 규모이기 때문임(〈부록 표 III-1〉 참조)

〈표 III-7〉 산업별 간접고용유발계수 행렬

(단위: 명/10억 원)

구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			
				비금융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농림수산업		-	0.05	0.02	0.01	0.02	0.01
제조업		0.85	-	0.58	0.20	0.64	0.18
서비스	비금융	1.39	1.78	-	1.79	5.85	1.68
	일반금융	0.10	0.07	0.11	-	0.42	0.19
	보험산업	-0.02	0.02	0.03	0.01	-	0.03
	금융보조	-0.01	0.02	0.03	0.12	2.94	-
간접효과 계		2.3	1.9	0.8	2.1	9.9	2.1

- (비금융서비스 구성 요소) 비금융서비스를 구성하는 세부 업종은 부동산/임대, IT/교통/통신, 음식/숙박업, 보건/의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⁵⁷⁾ 이들 산업에 미치는 보험산업의 간접 고용유발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
 - 보험산업 매출액 발생을 위해 각 산업의 구매비용을 보면, 부동산/임대가 27.3%, IT/교통/통신이 17.9%, 음식/숙박업이 12.5%, 보건/의료가 2.0%로 이들 산업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⁵⁸⁾
 - 특히, 최근 건강관리서비스의 확대 가능성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의료와의 관련성 외에 IT산업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이 건강관리서비스의 고용 확대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함

57) '투입산출표의 생산자가격 기본부문'에 총 106개 비금융서비스 항목이 있으며, 이를 부동산/임대, IT/교통/통신, 음식/숙박업, 보건/의료 등으로 구분함

58) 해당 산업 간 간접고용유발효과 산출에 필요한 취업자(파용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투입산출표의 생산자가격 기본부문'에서 제시되는 투입액자료를 활용함

〈표 III-8〉 보험산업 매출액 발생을 위한 비금융서비스 구매비용

(단위: 10억 원, %)

구분	부동산/임대	IT/교통/ 통신	음식/숙박업	의료/보건	기타*	전체
구매비용	3,469	2,272	1,591	258	5,119	12,708
비율	27.3	17.9	12.5	2.0	40.3	100.0

주: * 총 106개 비금융서비스 항목 중 기타는 70개 항목의 합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투입산출표/생산자가격/기본부문을 활용함

- 코로나19가 SAS, MERS와 같은 감염병과 달리 단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⁵⁹⁾을 고려하면 그 이후 수요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준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 이후 산업변화)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이버보험, 간병보험, 의료배상책임보험 등의 성장이 예상되고 이와 관련 있는 정보통신, 건강관리서비스, 의료, 바이오 산업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⁶⁰⁾

다. 평가 및 한계

-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이나 일반금융(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코로나19 고려 시) 현시점상 코로나19를 반영한 분석은 불가능하나, 과거 경제적 충격(예: IMF 외환위기) 전후의 산업연관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산업별 유발계수 값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그 추세는 유지되어 온 것으로 판단됨
- 이를 고려하면,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코로나19 이후에 영향을 받겠지만, 산업연관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상 오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영향 제한적) 한편, 보험산업의 2020년 1분기 수입보험료를 보면, 전년 동분기에 비해 양호하여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점도 분석결과를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표 II-9〉 참조)
- 다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4월 이후의 결과가 아니므로 다소

59) 김해식 외(2020)

60) 홍민지(2020)

이른 판단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는 있음⁶¹⁾

- (충격과 지속기간 구분) 따라서, 코로나19는 경제적 ‘충격 변수’로 보고, 그동안 지속되고 있던 고령화, 저출산, 저금리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지속 변수’로 보아 일자리 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보험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연관성이 높은 타 산업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19 미반영, 보험산업 비세분화, 부분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음

- (코로나19 미반영) 동 분석결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보험산업 세분화 미반영) 동 분석은 보험산업에 공제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부분적 접근) 고용창출효과 외에 부가가치유발, 생산유발효과 등 다른 효과들을 고려한 산업별 종합분석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또한 산업연관분석은 단기적 분석방법으로 고용유발효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다른 분석들(예: CGE 모형)과 함께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윤윤규 외 2008)

61) 김해식 외(2020)에 의하면, 예정이율 인하를 앞둔 2~3월에는 보험료 인상 전 영업활동 강화로 인해 수입보험료 실적이 좋으나 4월 이후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김해식 외(2020), p. 6

IV. 결론

- 본 연구에 의하면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이나 일반금융(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간접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사회안전망) 동 결과를 볼 때 보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안전망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됨
 - (보험산업 특성)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산업 간 연계성이 강하고, 보험상품 판매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설계사의 역할 등 보험산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음

-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시 공공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경제 충격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원리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에 주목하여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 효과) 이러한 점에서 보험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의 긍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보험산업의 활성화 정책이 요구됨
 - (퇴직자 활용) 보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구조조정, 조기퇴직이 많다는 점에서 전문성 있는 퇴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음⁶²⁾

62) '15~'18년간의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누적인원은 195천여 명으로 10명 중 4명(43.8%)이 '19. 9월 기준 미취업임. 보건의료와 기타교육분야 외에는 전문직종 재취업률은 30% 이하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5. 15), “초고령화의 진행,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발표”

- (신규일자리 창출 모색) 산업의 혁신 및 성장을 위해 인슈어테크 활성화,⁶³⁾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그리고 해외사업 확대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산업의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산업 정책 수립이 요구됨
- (규제 개편) 이를 위해 보험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음

63) 정부는 최근 금융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총 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핀테크 관련 일자리 수가 177명(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11. 18),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향”

참고문헌

- 강성호·김혜란(201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 보험연구원
- 김경섭·정상범(2016), 「국내금융·실물 부문 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한국은행
- 김봉철(2002), 「한국 광고산업의 성장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분석: 85-90-95년도 접속 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광고학연구』, 13(3)
- 김정욱·임시영(2015),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공간정보산업의 고용계수 예측」,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5(3),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 김종국·송덕진(2008), 「생명보험산업의 국민경제 효과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80권
- 김해식·조영현·김석영·노건엽·황인창·김동겸·손민숙(2020), 『코로나19 영향 및 보험 산업 대응과제』, CEO Report, 보험연구원
- 박재하·장민(2020),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 생명보험협회(2020. 4), 『월간생명보험 4월호』
- 신현열·김보성(2007), 「산업연관표로 분석한 금융산업의 구조 및 경제기여도 변화」, 한국은행
- 오은주(2018), 『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칠 영향 고려해 직업군 특성별 인력개발정책 시행해야』, 서울연구원
- 윤윤규·지해명·이창수·류덕현(2008), 『고용영향분석 평가방법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창·정강옥·황진영·임응순(2010),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유통연구』, 15(5)
- 이장원(2019), 「금융보험산업 노동시장 진단 및 핵심개선과제 도출」, 한국노동연구원
- 정기호(2013), 「보험산업의 산업 간 연쇄효과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4권 3호
- 정원석(2019. 6. 24), 「전속설계사 소득분포의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2020),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HIF월간 산업 이슈』, 4월호

한국고용정보원(2020), 『2020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_____ (2019),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7-2027』

한국은행(2019), 『2015년 산업연관표』

_____ (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홍민지(2020), 「코로나19의 손해보험 종목별 영향」,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IMF(2020), *World Economic Outlook*, p. 9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대한민국일자리상황판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한국경제연구원, KERI DB

US Bureau of Labour Statistics

부록 I. 용어 정리

- 총공급 = 국내 총산출 + 수입
 - 총수요 = 국내수요(중간수요 + 국내 최종수요) + 국외수요(수출)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총산출액
 - 중간투입률 = 중간투입액 ÷ 총산출액
 - 전업환산기준: 임시 및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업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 기준으로 조정하여 임시·일용직의 고용량을 환산
 - 생산유발계수: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 부가가치유발계수: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 노동계수(취업계수, 고용계수): 특정 산업부문 1단위(생산물 10억 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노동생산성과는 역의 관계에 있음)
 - 취업계수(취업자 수/산출액)와 고용계수(피용자 수/산출액)로 구분
 - 노동유발계수(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해당 산업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도 포함
 - 노동유발계수(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는 노동계수에 최종수요 1단위당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역행렬계수)를 곱하여 산출
 - 취업유발계수 = $\hat{l}_w (I - A^d)^{-1}$, 고용유발계수 = $\hat{l}_e (I - A^d)^{-1}$
 - * 단, $(I - A^d)^{-1}$: 생산유발계수, $\hat{l}_w \cdot \hat{l}_e$: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의 대각행렬
- ※ 추가적 사항은 한국은행(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등 참고

부록 II. 산업별 취업자

〈부록 표 II-1〉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산업별	2013	2015	2017	2019
계	25,299	26,178	26,725	27,123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513	1,337	1,279	1,395
* 광공업(B, C)	4,322	4,618	4,589	4,444
B 광업(05~08)	16	14	23	15
C 제조업(10~34)	4,307	4,604	4,566	4,429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D~U)	19,464	20,222	20,857	21,28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74	79	72	68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93	106	115	135
F 건설업(41~42)	1,780	1,854	1,988	2,020
* 도소매·숙박음식점업(G, I)	5,678	6,011	6,083	5,966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E, L~U)	8,929	9,278	9,734	10,139
* 전기·운수·통신·금융(D, H, J, K)	3,077	3,079	3,053	3,160
G 도매 및 소매업(45~47)	3,694	3,816	3,795	3,663
H 운수 및 창고업(49~52)	1,428	1,429	1,405	1,431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985	2,195	2,288	2,303
J 정보통신업(58~63)	697	774	783	861
K 금융/보험업(64~66)	878	799	794	800
L 부동산업(68)	437	462	540	556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029	1,055	1,092	1,157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228	1,331	1,374	1,312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976	948	1,058	1,076
P 교육 서비스업(85)	1,766	1,835	1,907	1,883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566	1,781	1,921	2,206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394	428	428	495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261	1,232	1,222	1,233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173	82	64	75
U 국제 및 외국기관(99)	8	19	12	12

자료: e-나라지표/산업별 취업자

〈부록 표 II-2〉 산업별 취업자 수 및 임금근로자 수

(단위: 만 명, %)

산업별	취업자		임금근로자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농림수산물	123 (5.1)	124 (5.1)	10 (0.6)	10 (0.5)
광산품	2 (0.1)	2 (0.1)	2 (0.1)	2 (0.1)
공산품	393 (16.4)	393 (16.1)	340 (19.6)	340 (19.3)
소비재제품	102 (4.3)	101 (4.1)	75 (4.3)	74 (4.2)
기초소재제품	99 (4.1)	98 (4.0)	89 (5.1)	87 (5.0)
조립가공제품	161 (6.7)	165 (6.8)	151 (8.7)	154 (8.7)
제조임가공·산업 용장비수리	30 (1.2)	29 (1.2)	25 (1.5)	25 (1.4)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8 (0.8)	19 (0.8)	17 (1.0)	18 (1.0)
건설	157 (6.6)	164 (6.7)	115 (6.6)	119 (6.8)
서비스	1,706 (71.1)	1,734 (71.2)	1,249 (72.1)	1,272 (72.3)
도소매 및 운송	476 (19.8)	485 (19.9)	266 (15.3)	280 (15.9)
생산자서비스	470 (19.6)	475 (19.5)	413 (23.9)	415 (23.6)
사회서비스	434 (18.1)	445 (18.3)	394 (22.7)	405 (23.0)
소비자서비스	326 (13.6)	328 (13.5)	176 (10.2)	172 (9.8)
기타	0 (0.0)	0 (0.0)	0 (0.0)	0 (0.0)
합계	2,399 (100.0)	2,435 (100.0)	1,732 (100.0)	1,760 (100.0)

주: () 안은 부문별 구성비임

자료: 한국은행(2019. 9. 25), “2016-2017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부록 표 II-3〉 보험산업의 취업자 수

(단위: 개, 명)

구분		회사 수	점포 수	임직원 수	대리점 수	설계사 계	전속설계사 수	취업자 수
생명 보험	2010.3	22	4,511	26,681	12,674	163,532	140,101	190,213
	2011.3	23	4,392	26,589	9,846	147,490	133,374	174,079
	2012.3	24	4,454	28,615	8,965	156,145	144,554	184,760
	2013.12	25	4,402	30,380	7,091	144,792	137,582	175,172
	2014.12	25	4,002	28,111	6,868	131,825	124,595	159,936
	2015.12	25	3,855	27,309	6,049	128,729	118,986	156,038
	2016.12	25	3,812	26,890	6,379	126,161	113,559	153,051
	2017.12	25	3,488	25,408	6,450	122,190	106,989	147,598
	2018.12	24	3,318	25,444	6,239	112,595	96,617	138,039
	2019.12	24	3,017	25,362	6,429	109,322	91,927	134,684
손해 보험	2010.3	30	2,820	28,838	45,050	174,380	90,753	203,218
	2011.3	30	2,923	28,998	41,970	171,956	90,932	200,954
	2012.3	31	3,035	31,054	39,831	169,267	92,034	200,321
	2013.12	31	3,251	33,479	36,970	171,591	93,485	205,070
	2014.12	31	3,178	33,047	32,995	163,348	84,639	196,395
	2015.12	31	3,104	32,373	30,850	163,800	84,005	196,173
	2016.12	32	3,038	31,943	29,769	165,809	83,237	197,752
	2017.12	32	2,993	32,446	29,277	168,327	81,968	200,773
	2018.12	30	2,920	34,015	27,642	171,641	81,741	205,656
	2019.12	30	2,891	34,314	27,769	174,410	94,995	208,724
전체	2010.3	52	7,331	55,519	57,724	337,912	230,854	393,431
	2011.3	53	7,315	55,587	51,816	319,446	224,306	375,033
	2012.3	55	7,489	59,669	48,796	325,412	236,588	385,081
	2013.12	56	7,653	63,859	44,061	316,383	231,067	380,242
	2014.12	56	7,180	61,158	39,863	295,173	209,234	356,331
	2015.12	56	6,959	59,682	36,899	292,529	202,991	352,211
	2016.12	57	6,850	58,833	36,148	291,970	196,796	350,803
	2017.12	57	6,481	57,854	35,727	290,517	188,957	348,371
	2018.12	54	6,238	59,459	33,881	284,236	178,358	343,695
	2019.12	54	5,908	59,676	34,198	283,732	186,922	343,408

주: 1) 대리점 수: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모집위탁계약이 체결된 건수임

2) 설계사 수: 기준일자 말로 생보협회에 등록된 생명보험 설계사 수로, 기존 금융통계월보에서 발표한 설계사 수(각 사에서 활동가능한 영업코드를 부여한 설계사)와는 기준에 차이가 있음. 설계사 수는 교차모집설계사가 포함된 수치임

3) 점포 수, 임직원 수, 대리점 수 현황은 업무보고서에 의거 분기별로 산출됨

* 기준년월 기준으로 직전 10회계연도 및 직전 13개월 자료가 조회됨

자료: 생명보험협회(1. 생명보험회사 일반현황); 손해보험협회

부록 III. 산업연관 기초 통계

〈부록 표 III-1〉 산업유형별 총투입계

(단위: 10억 원)

구분	농림 수산업	제조업	비금융	일반 금융	생명 보험	손해 보험	금융 보조
중간투입계(A)	27,488	1,269,090	989,149	28,453	14,833	18,332	9,002
부가가치계(B)	33,980	543,960	1,133,031	65,476	9,742	6,059	19,846
피용자보수	5,531	183,633	594,810	25,498	2,930	3,133	8,880
영업잉여	24,158	172,869	251,656	33,837	5,959	2,483	3,682
고정자본소모	4,989	127,974	198,901	5,320	688	809	995
기타생산세 (보조금 공제)	-698	59,483	87,664	821	164	-365	6,289
총투입계(A+B)	61,468	1,813,050	2,122,180	93,929	24,574	24,391	28,849

주: 총투입계 = 중간투입계 + 부가가치계(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 생산세)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투입산출표/생산자가격/기본부문을 활용함

〈부록 표 III-2〉 산업유형별 부가가치율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2016	2017
전산업	44.7	43.1	41.2	36.4	35.0	37.0	43.8	43.5
농림수산업	65.6	62.4	58.0	53.3	54.4	55.3	53.7	55.3
제조업	31.0	27.4	25.4	21.8	20.6	22.2	29.7	30.0
서비스업	60.8	59.1	57.1	55.4	54.4	55.2	56.9	56.4
금융/보험	71.1	68.8	62.7	54.9	52.8	53.2	58.4	58.9
공공행정	60.0	68.2	68.9	76.1	76.2	73.9	75.9	75.4
사회복지	71.5	56.8	68.3	48.7	47.1	43.4	63.9	63.8

주: 1) 한국은행 통계 개편으로 2010년 이전과 이후 통계의 일관성이 없을 수 있음

2)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생산) × 100

자료: 산업연구원/산업별통계/주제별통계/생산부문/부가가치/부가가치율

부록 IV. 산업연관표: 시계열 통계

〈부록 표 IV-1〉 주요 산업별 고용계수

산업	전산업	농림 수산업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	금융/ 보험	공공 행정	사회 복지
1995년	13.46	7.79	9.77	15.88	18.63	26.55	26.39	17.74
2000년	7.66	4.3	4.43	11.95	11.09	10.94	15.48	17.07
2005년	5.98	4.05	3.05	10.38	8.81	6.18	10.17	23.18
2006년	5.81	4.17	2.89	10.49	8.56	5.73	9.49	24.01
2007년	5.59	4.38	2.69	9.75	8.4	5.32	9.02	23.33
2008년	5.02	3.96	2.24	8.62	8.09	5.18	8.47	30.21
2009년	5.13	3.74	2.27	8.3	8.21	5.16	8.87	32
2010년	4.63	2.32	1.84	5.92	8.3	5.52	9.78	27.44
2011년	4.42	2.26	1.64	5.94	8.34	5.17	9.34	30.66
2012년	4.48	1.95	1.64	6.32	8.35	5.06	8.89	32.65
2013년	4.53	1.9	1.74	5.86	8.26	5.32	8.73	33.96
2014년	4.57	1.86	1.82	5.89	8.11	5.17	7.86	32.08
2015년	4.61	1.6	2.07	5.51	7.33	4.41	7.66	30.86
2016년	4.41	1.58	2	4.64	6.92	4.26	7.54	28.69
2017년	4.22	1.56	1.88	4.36	6.68	3.96	7.39	28.83

주: 고용계수 = 피용자 수 / 산출액(10억 원)

자료: 산업연구원/산업별통계/주제별통계/산업연관관계/고용계수(산업별)

〈부록 표 IV-2〉 주요 산업별 취업계수

산업	전산업	농림 수산업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	금융/ 보험	공공 행정	사회 복지
1995년	20.44	77.48	10.29	16.63	29.59	26.72	26.39	25.4
2000년	11.97	58.21	4.94	12.58	17.27	11.02	15.48	18.71
2005년	8.51	42.61	3.38	10.47	12.53	6.24	10.17	24.67
2006년	8.2	41.48	3.21	10.87	12.05	5.79	9.49	25.54
2007년	7.84	39.58	2.99	10.13	11.79	5.37	9.02	24.86
2008년	7.01	35.62	2.48	8.96	11.29	5.22	8.47	32.43
2009년	7.11	32.64	2.51	8.61	11.4	5.21	8.87	34.17
2010년	6.81	28.58	2.22	8.08	11.88	5.75	9.78	29.42
2011년	6.38	27.18	1.95	8.15	11.71	5.41	9.34	32.56
2012년	6.42	26.29	1.94	8.76	11.64	5.28	8.89	34.39
2013년	6.44	26.21	2.02	8.04	11.46	5.53	8.73	35.88
2014년	6.44	24.85	2.1	8.13	11.22	5.38	7.86	34.03
2015년	6.41	21.18	2.38	7.61	10.03	4.6	7.66	32.69
2016년	6.11	20.47	2.31	6.37	9.44	4.47	7.54	30.06
2017년	5.84	20.24	2.17	5.97	9.1	4.18	7.39	30.2

주: 취업계수 = 취업자 수(자영자 포함) / 산출액(10억 원)

자료: 산업연구원/산업별통계/주제별통계/산업연관관계/취업계수(산업별)

〈부록 표 IV-3〉 주요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연도	전산업	농림 수산업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	금융/ 보험	공공 행정	사회 복지
1995년	24.24	14.72	20.77	28.61	27.25	33.59	34.5	24.32
2000년	13.64	8.33	10.11	18.33	16.11	14.81	19.03	22.25
2005년	10.14	7.54	7.68	15.03	13.14	9.89	13.37	26.67
2006년	9.87	7.71	7.42	15.09	12.85	9.80	12.63	27.41
2007년	9.58	7.68	6.97	14.17	12.57	9.41	12.20	26.62
2008년	8.80	7.16	5.89	12.60	11.92	9.24	11.40	33.29
2009년	8.78	6.99	6.15	12.48	12.18	9.29	11.86	35.10
2010년	9.00	5.12	5.44	10.43	11.73	9.81	11.93	31.15
2011년	8.87	4.73	4.92	10.18	11.76	9.48	11.50	34.30
2012년	8.77	4.40	4.89	10.40	11.73	9.50	10.95	36.17
2013년	8.77	4.33	5.06	9.95	11.69	10.11	10.66	37.61
2014년	8.69	4.32	5.32	10.03	11.54	9.58	10.14	35.99
2015년	8.02	4.35	5.56	9.53	10.67	7.78	9.34	33.45
2016년	7.87	4.27	5.19	8.25	10.14	7.70	9.36	31.24
2017년	7.59	4.00	4.81	7.76	9.80	7.12	9.12	31.31

주: 1) 고용유발계수 = 최종수요에 의한 고용유발 인원(명) / 국산품 최종수요액(10억 원)

2) 2015년 이후 산정방식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동일 연도일지라도 과거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3) 전산업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참조 바람

자료: 산업연구원/산업별통계/주제별통계/산업연관관계/고용유발계수(산업별)

〈부록 표 IV-4〉 주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연도	전산업	농림 수산업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	금융/ 보험	공공 행정	사회 복지
1995년	36.80	90.50	28.35	35.08	42.82	36.75	39.11	36.42
2000년	21.32	66.64	15.37	22.51	25.24	16.19	21.19	27.19
2005년	16.26	49.79	10.80	17.16	18.90	10.75	15.08	29.83
2006년	15.86	48.78	10.36	17.43	18.32	10.76	14.32	30.54
2007년	15.26	45.97	9.62	16.37	17.82	10.32	13.81	29.64
2008년	13.98	41.67	8.11	14.55	16.81	10.16	12.85	36.93
2009년	13.78	38.59	8.43	14.46	17.07	10.19	13.12	38.65
2010년	13.93	34.32	7.86	14.71	16.98	11.47	13.02	36.21
2011년	13.44	32.11	7.01	14.28	16.70	11.05	12.51	38.96
2012년	13.19	31.15	6.91	14.61	16.54	11.10	11.90	40.59
2013년	13.06	30.88	7.06	13.83	16.36	11.81	11.54	42.11
2014년	12.88	29.49	7.34	13.93	16.08	11.19	11.17	40.51
2015년	11.69	25.85	7.49	13.13	14.73	8.94	10.07	36.97
2016년	11.41	24.98	6.95	11.30	13.96	8.88	10.14	34.23
2017년	11.04	24.41	6.44	10.63	13.49	8.27	9.86	34.23

주: 1) 취업유발계수 = 최종수요에 의한 취업유발 인원(명) / 국산품 최종수요액(10억 원)

2) 2015년 이후 산정방식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동일 연도일지라도 과거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3) 전산업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를 참조 바람

자료: 산업연구원/산업별통계/주계별통계/산업연관관계/취업유발계수(산업별)

부록 V. 산업연관표: 보험산업 분석

〈부록 표 V-1〉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 산출

산업유형		세부업종	분류기준
농림수산		농림수산물	대분류
제조업 (광공산품 포함)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 품, 금속가공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 계 및 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제품, 제조임가공 및 산 업용 장비, 수리	
비금융서비스		전력, 가스 및 증기,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건 설,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부동산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 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기타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일반금융	금융서비스	소분류
	보험산업	보험서비스	
	금융보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산업연관표의 고용표(통합대/중/소분류)를 재구성함

〈부록 표 V-2〉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 산출

산업유형	전업환산 기준(상품, 천 명)		투입계 (10억 원, B)	취업계수 (A1/B)	고용계수 (A2/B)
	취업자 수(A1)	피용자 수(A2)			
농림수산	1,244	96	61,468	20.2	1.6
제조업	3,945	3,416	1,813,050	2.2	1.9
비금융서비스	18,442	13,413	2,122,180	8.7	6.3
일반금융	313	306	93,929	3.3	3.3
보험산업	245	232	48,966	5.0	4.7
금융보조	161	142	28,849	5.6	4.9
계	24,350	17,605	4,168,442	5.8	4.2

〈부록 표 V-3〉 취업계수 행렬: E

구분	농림수산	제조업	비금융 서비스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농림수산	20.237	0	0	0	0	0
제조업	0	2.176	0	0	0	0
비금융서비스	0	0	8.690	0	0	0
일반금융	0	0	0	3.329	0	0
보험산업	0	0	0	0	5.000	0
금융보조	0	0	0	0	0	5.585
취업계수	20.237	2.176	8.690	3.329	5.000	5.585

〈부록 표 V-4〉 고용계수 행렬: L

구분	농림수산	제조업	비금융 서비스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농림수산	1.556	0	0	0	0	0
제조업	0	1.884	0	0	0	0
비금융서비스	0	0	6.320	0	0	0
일반금융	0	0	0	3.262	0	0
보험산업	0	0	0	0	4.735	0
금융보조	0	0	0	0	0	4.906
고용계수	1.556	1.884	6.320	3.262	4.735	4.906

〈부록 표 V-5〉 생산유발계수 산출을 위한 행렬: I

구분	농림수산	제조업	비금융 서비스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농림수산	1	0	0	0	0	0
제조업	0	1	0	0	0	0
비금융서비스	0	0	1	0	0	0
일반금융	0	0	0	1	0	0
보험산업	0	0	0	0	1	0
금융보조	0	0	0	0	0	1

〈부록 표 V-6〉 생산유발계수 산출을 위한 행렬: AD

구분	농림수산	제조업	비금융 서비스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농림수산	0.045	0.017	0.006	0.000	0.001	0.000
제조업	0.253	0.332	0.146	0.025	0.069	0.021
비금융서비스	0.102	0.132	0.229	0.188	0.517	0.168
일반금융	0.021	0.008	0.021	0.045	0.071	0.045
보험산업	-0.006	0.002	0.004	0.001	0.040	0.004
금융보조	0.000	0.000	0.001	0.021	0.537	0.054

〈부록 표 V-7〉 생산유발계수 산출을 위한 행렬: (I-AD)

구분	농림수산	제조업	비금융 서비스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농림수산	0.955	-0.017	-0.006	0.000	-0.001	0.000
제조업	-0.253	0.668	-0.146	-0.025	-0.069	-0.021
비금융서비스	-0.102	-0.132	0.771	-0.188	-0.517	-0.168
일반금융	-0.021	-0.008	-0.021	0.955	-0.071	-0.045
보험산업	0.006	-0.002	-0.004	-0.001	0.960	-0.004
금융보조	0.000	0.000	-0.001	-0.021	-0.537	0.946

〈부록 표 V-8〉 생산유발계수 행렬: (I-AD)⁻¹

구분	농림수산	제조업	비금융 서비스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농림수산	1.057	0.029	0.013	0.004	0.012	0.003
제조업	0.450	1.572	0.306	0.104	0.340	0.096
비금융서비스	0.220	0.282	1.365	0.283	0.926	0.266
일반금융	0.032	0.021	0.034	1.055	0.130	0.058
보험산업	-0.005	0.004	0.006	0.003	1.049	0.006
금융보조	-0.001	0.004	0.006	0.025	0.600	1.062

〈부록 표 V-9〉 산업 간 취업유발계수

구분	농림수산	제조업	비금융 서비스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농림수산	21.383	0.589	0.272	0.076	0.250	0.069
제조업	0.978	3.420	0.667	0.226	0.739	0.209
비금융서비스	1.915	2.452	11.862	2.461	8.047	2.314
일반금융	0.105	0.069	0.112	3.513	0.434	0.192
보험산업	-0.026	0.018	0.028	0.013	5.243	0.028
금융보조	-0.008	0.020	0.032	0.139	3.349	5.930
총효과	24.3	6.6	13.0	6.4	18.1	8.7

주: E행렬과 $(I-AD)^{-1}$ 행렬의 행렬식으로 산출

〈부록 표 V-10〉 산업 간 고용유발계수

구분	농림수산	제조업	비금융 서비스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농림수산	1.644	0.045	0.021	0.006	0.019	0.005
제조업	0.847	2.962	0.577	0.196	0.640	0.181
비금융서비스	1.393	1.784	8.628	1.790	5.853	1.683
일반금융	0.103	0.067	0.110	3.442	0.425	0.188
보험산업	-0.025	0.017	0.027	0.012	4.965	0.027
금융보조	-0.007	0.018	0.028	0.123	2.942	5.209
총효과	4.0	4.9	9.4	5.6	14.8	7.3

주: L행렬과 $(I-AD)^{-1}$ 행렬의 행렬식으로 산출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 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해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1
-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11
-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9.12
- 20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 강성호·김혜란 2019.12
- 20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 송인정 2019.12
- 20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19.12
- 202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송윤아·한성원 2020.1
- 2020-2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 김세중·김혜란 2020.4
- 2020-3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2020.6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
 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
 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
 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
 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
 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
 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
 김세중·오병국 2011.12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 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증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운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

- 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 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 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이슈보고서

-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 2020-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윤성훈 2020.1
- 2020-2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김동겸 2020.3
- 2020-3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정성희·이아름 2020.6
- 2020-4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 이상우 2020.6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 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하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 2020-1 공제보험 현황 조사 / 최창희·홍민지 2020.4

■ 연차보고서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제 12호	201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0.1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제3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9/ KIRI, 2020.2
제3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9/ KIRI, 2020.5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운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2020-1 코로나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 김해식·조영현·김석영·노건엽·황인창·김동겸·손민숙 2020.4
 2020-2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20.6
 2020-3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과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20.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해외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저 자 약 력

강 성 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ksh0515@kiri.or.kr)

정 인 영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essence4u@kiri.or.kr)

이슈보고서 2020-5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발행일 2020년 7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퍼
